

치과 무자격 의술자의 시술 경험 패턴 연구 : 2006 국민 구강건강 실태조사 자료

김은엽*, 함승우**, 임근옥***, 부유경****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 한국원자력의학원, *** 초당대학교 치위생학과, 을지대학교 보건산업대학
key0227@korea.ac.kr, hsw@kcch.re.kr, kolim@chodang.ac.kr, shschool@eulji.ac.kr

The Model Predicting Disqualified Medicine Operation Experience Pattern

E. Y. Kim*, S. W. Ham**, K. O. Lim***, Y. K. Pu****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Medical Record,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odang University

****Department of Healthcare Management, Eulj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치과치료를 무자격 의술자에게 받은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6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755명으로 치과 무자격시술 경험 유무에 따라 그룹을 나누었다. 무자격 시술 예측 모형을 기 분석에서 살아남은 변수로 CART 모형으로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보험 종류가 의료급여 1종중 66.67%가 무자격 시술경험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직장 또는 미가입 자는 15.46%만 무자격 시술경험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연령은 66.5세를 기준으로 6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30.0%가 무자격 시술경험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66.5세 미만은 72.7%가 무자격 시술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서론

2. 연구방법

1.1 연구배경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른 건강분야 만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 반면, 의술이 발달함에 따라 고가의 장비와 치료에 따라 의료비 지출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2].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지금에도 무자격자에 의한 의술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중 한분야가 치과로 속칭 ‘야매’라고 하는 의술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의술은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3]. 하지만, 치과치료는 무자격자에게 해도 괜찮다는 일부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치료를 무자격 의술자에게 받은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무자격 치료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제공하여 올바른 치료를 통한 건강유지가 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1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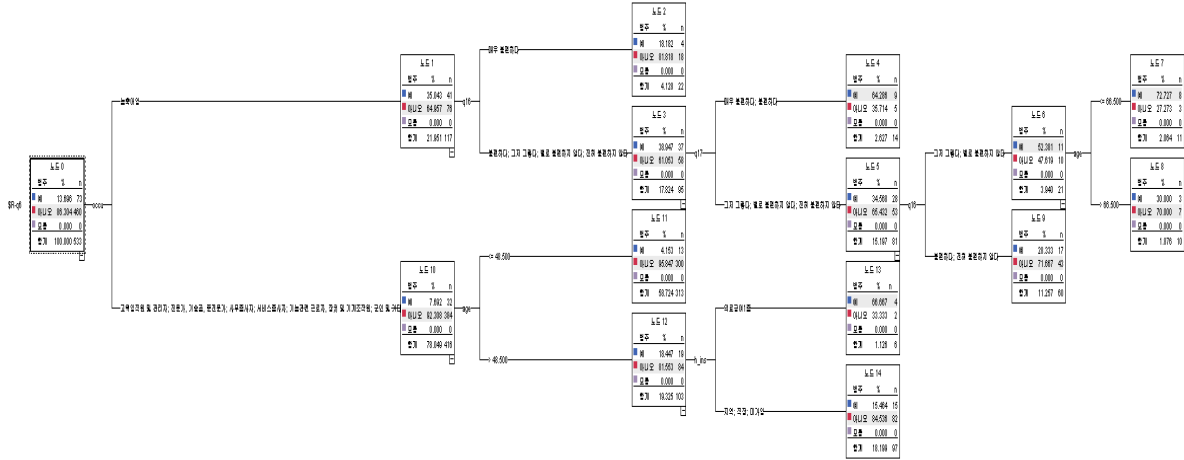
본 연구는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총 자료는 15,777명 중 본 연구목적에 따라 무자격 치과 치료 경험유무에 따라 데이터를 정제하였다. 자료 중 치과 진료를 받기전 일반적 사항 변수만 선택하여 무자격시술자에게 구강검진을 받은 경험 유무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755명으로 치과 무자격시술 경험 유무에 따라 그룹을 나누었다. 치과 무자격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8명 14.3%, 치과 무자격 시술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 647명 85.7%를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06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항목에서 치과 치료전 질문 문항만 발취하여 종속변수를 무자격 의술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다.



분석방법은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엑셀로 사전 코드 작업을 행한 후 SPSS program ver 17.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치과 무자격시술 경험 유무와 인구 사회학적요인, 건강인식, 구강상태, 흡연 유무 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hi-square 검정을 통해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무자격 시술 경험 예측은 Clementine ver 12.0으로 예측하였다.

3. 연구결과

3.1 무자격 시술에 따른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결과 성별은 남자 684명 90.6%, 여성 71명 9.4%로이었다. 연령은 무자격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그룹이 62.07±13.51세 무자격 시술을 받지 않은 그룹이 47.30±17.03세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학력은 무자격 시술 경험이 있는 그룹이 학력이 무자격 시술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p<0.001). 직업은 무자격시술 경험이 있는 그룹은 농축어업이 가장 높은 반면, 무자격시술 경험이 없는 그룹은 서비스업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p<0.001). 성별은 여성이 두 그룹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p<0.001).

3.2 무자격 시술에 따른 건강특성

건강수준에 대한 인식은 무자격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그룹이 19.5%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무자격 시술 경험이 없는 그룹은 28.2%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구강건강에 대한 걱정은 무자격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그룹은 71.1%가 걱정한다고 무자격 시술 경험이 없는 그룹은 69.0%가 걱정한다고 응답하였다(p<0.001). 일상에

서 저작시 불편함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무자격 시술 경험이 있는 그룹은 53.9%가 있다고 한 반면, 무자격 시술 경험이 없는 그룹은 28.7%가 있다고 하였다(p<0.001). 발음시 불편감이 있는가에 대한 결과 무자격 시술 경험이 있는 그룹은 18.0%가 있다고 한 반면, 무자격 시술 경험이 없는 그룹은 6.5%가 있다고 하였다(p<0.001). 과자나 케익 섭취 빈도는 두 그룹 모두 먹지 않거나 1번 정도 먹는 것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p=0.336).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비율은 무자격 시술 경험이 없는 그룹이 19.9%로 무자격 시술 경험이 있는 그룹 15.2%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3).

3.3 무자격 시술 예측 모형

무자격 시술 예측 모형을 기 분석에서 살아남은 변수로 CART 모형으로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보험 종류가 의료급여 1종중 66.67%가 무자격 시술경험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직장 또는 미가입 자는 15.46%만 무자격 시술경험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연령은 66.5세를 기준으로 6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30.0%가 무자격 시술경험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66.5세 미만은 72.7%가 무자격 시술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토의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의술로 인한 심적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올바르게 못한 무자격 시술자에게 의술을 받고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자격 시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그룹을 사전에 예측하여

바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건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은숙, “인지한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 증진행위 및 일상생활 구강건강인지(DIDL)관계 분석”,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24권, 제2호, pp. 145-157, 2000.
-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전략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3] 강신익, “생명의료윤리의 역사와 철학 - 치과 의사의 윤리를 중심으로 -”, 의사학, 제11권, 제2호, pp. 117-136, 12월, 2002.